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6

요한계시록에서
(6)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시는 분

성경: 계시록 3:7-22

I.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 A.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각 서신의 시작마다 일곱 교회들 각각에게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일곱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은(2:1, 8, 12, 18, 3:1, 7, 14) 각 서신의 끝에서 우주적으로 일곱 교회들 모두에게 일곱배로 강화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의 말씀하심이 된다 (2:7, 11, 17, 29; 3:6, 13, 22).
- B.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그 영 곧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방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께서는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신다.
- C. 이것은 그 영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교회 하락의 어둠 속에서는 그 영께서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시록 1:4 에서 일곱배로 강화되신 그 영으로 나타내진다.
- D.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은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각 서신의 서두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특정한 지방 교회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 영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 E. 그 영의 말씀하심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으로 돌이키게 한다. 그 영의 말씀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이다—비교 고후 3:16-18:
 - 1.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우리는 즉시 귀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런 옮겨부음과 주입하심 아래 있게 된다. 그 옮겨부음과 주입하심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합당한 재료로 만드시고 우리를 건축하시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한다.
 - 2. 불뭇으로 가야만 할 것은 무엇이든지 일곱 등불로 태워진다(계 4:5).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곱 눈 아래 있으면서 (5:6)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하심으로 주입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기 위한 것이다.
- F. 비록 교회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들을 귀를 갖는 것이 쉽지만, 그들 가운데 모든 이가 그분의 말씀을 긴밀히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 G.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야 하며,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 1.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경륜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욥 33:14-16, 사 50:4-5, 출 21:6.

2. 듣지 않는 막힌 귀는 할레받아야 한다—렘 6:10, 행 7:51.
 3.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고 그 영으로 기름발라져야 한다—레 14:14, 17, 28.
 4.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우리의 귀가 구속하는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출 29:20, 레 8:23-24.
 5.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할레받은 귀, 정결케 된 귀, 기름 발라진 귀가 필요하다.
- H. 그 영의 말씀하심은 교회 역사 안에 있는 일곱 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이다—초대 교회(에베소), 고난 받는 교회(서머나), 세상적인 교회(버가모), 배도한 교회(두아디라), 개혁 교회(사데),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하락한 교회(라오디게아).
1. 마지막 네 종류의 교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까지 전부 남아있을 것이다.
 2. 의심할 바 없이, 오직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오직 그 교회만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라오디게아는 비뚤어진 빌라델비아로서 미지근하며 영적인 교만이 있다—계 3:14-17.
 - a.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에도 열심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현재 상태를 잊고 있다.
 - b.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 안에 계속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비교 3:7-22, 사 57:15, 66:1-2.

II.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 열쇠를 메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신다—사 22:22, 계 3:7.

- A.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열고 닫는 권위를 가진 다윗의 열쇠,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주님은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계 3:8, 비교 시 133.
- B.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변화되어 흰 돌이 되는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문을 열어 준다—계 2:17, 3:12:
1.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조성체가 되고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을 처리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롬 8:2, 계 3:7-13, 비교 창 28:12-19, 요 1:51.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통제하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 보물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러한 풍성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고 닫혀지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엡 4:30, 살전 5:17, 요일 1:7, 9.
 - a. 보물 같은 그분의 풍성을 누리려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물러야 하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고후 2:10, 롬 8:6, 10:12-13, 골 3:16, 마 5:3, 8.
 - b. 보물 같은 그분의 풍성을 누리려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쟁나들’ 이므로 제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로 대치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사 22:15-19, 마 16:24-25.

III. 회복되었다가 하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시는 분, 그리고 자신이 이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이들이 자신의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계 3:20-21.

- A.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 3:20
1.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2.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
 3.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음과 같다. 즉 (1) 비참하다. 왜냐하면 공허한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몹시 빈약하기 때문이다. (2) 가련하다. 왜냐하면 벌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3) 가난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재 면에서 가난하기 때문이다 (4) 눈멀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일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 벌거벗고 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곧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살지도 않기 때문이다—3:15-17, 비교 시 45:1, 9-14.
 4.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5.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식사 곧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는 것의 예표가 성취되는 것을 함축할 수도 있다—수 5:10-12.
 6.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감추인 만나로 잔치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조성 안에서 그분과 하나의 실체로 연합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계 2:7, 17, 3:20.
- B.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3:21:
1.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눅 19:11-27, 마 25:21, 23.
 2.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하여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다—계 2:26-27, 3:21, 22:5, 비교 사 14:12-14.
 3.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심으로써 그 보좌에 오르게 되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 사람이 보좌 위에 계신다(겔 1:26). 이제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한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해야 하며 또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불러야 한다.
 4. 주 예수님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선구자요 선주자로서(히 6:20, 2:6-9)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 그분은 길을 여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앞장서셨다(히 2:10-12).
 5. 이제 우리는 보좌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시며 또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던지시고 사탄에게 포로로 잡혔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왕들이 되는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심으로써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롬 5:17, 21, 비교 겔 1:22, 26, 마 8:9.